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19일)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조계종 종무기관 조직개편 출재가 대중들 머리 맞댔다

조계종, 7월 17일 '조직 개편 공청회' 첫 개최

우봉 스님 조직 개편안 발제해
허운 · 만당 스님 등 토론 나서
'종무조직 슬림화' 질의 잇달아
"5개년 계획 등 서서히 감축을"
포교 기능 등 축소 우려 제기돼
종무행정 일원화엔 긍정적 의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앞두고 의미있는 변화 방안을 이끌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기획실과 중앙종회 미래대비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겸해 마련된 공청회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종무기관 부실국장 스님, 신도단체 임원진 등이 동참해 조직개편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공청회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 발제에 이어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 만당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 김상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곽채기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230회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종단의 존립과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진우 스님은 "미래불교는 현 조직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제와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중앙종무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전법과 승가교육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종단 행정기구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새롭게 재구성해야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활발했던 논의는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만당 스님이 미래를 대비한 인적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노동법 등을 감안해 인원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면서 종무원 교육과 재비치 등으로 채워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봉 스님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인적 구조조정 없는 슬림화에 대한 의문이 잇달아 터져나오자 김상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서서히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됐을 때 포교 조직과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상규 부회장이 "포교부의 경우 연구기능은 사라지고 문화콘텐츠 기능만 추가돼 포교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우봉 스님은 개편되는 총무원 조직 전체가 포교에 앞장서기 위해 조정됐음을 명확히 했다.

우봉 스님은 "포교를 총무원장스님이 직접 주관기기 위해 삼원을 통합했다"면서 "조직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포교이며, 앞으로 총무원 모든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법과 포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조계종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인적 물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서비스와 사찰 지원 기능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을 높게 평가하고 "중앙종무 기능의 서비스화와 지원 기능 확충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을 △중앙종무기관 효율성 제고 △중앙종무기관의 서비스 확충 △종무행정기능의 전문화 및 과학화 △미래지향적 조직 구축 등 4가지로 정리한 곽 교수는 특히 "조직개편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스님에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위임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재직자 재교육관 훈련 확대로 조직개편이 지향하는 본래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홍보를 언급하며 홍보와 공보 역할 구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리, 사찰재정 위기를 예상, 수익사업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공청회 이후 조직개편 실무 TFT와 법무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조직개편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8월 말 입법예고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종회, 주요 기관장 등의 동의를 얻은 뒤 관련 법안을 9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시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앙종무기관은 8부 3실 19국으로 조성된다. △종무행정부(행정국, 감사국) △기획재정부(기획국, 재정국) △포교부(전법국, 신행국) △교육부(수행교육국, 승려복지국) △사찰부(사찰지원국, 자산국) △문화부(문화정책국, 문화유산국) △사회부(사회협력국, 문화유산국) △호법부(호법국)로 구성됐다.



K-연등, 폴란드를 비추다 연등회보존위원회와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 '2024 유네스코 한국 문화유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연등회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 폴란드 현지 문화기관과 협력해,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통등 만들기 강습, 연등행렬, 전통한지등 전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폴란드 현지 전통등 강습생들이 손수 만든 등을 들고 촬영한 단체 사진.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로터스월드 MOU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에 협력키로

열악한 식수환경으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과 영양실조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선물하는 캠페인이 시작된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혜도 스님)과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7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로터스월드 사무실에서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재완 본지 총괄국장(사진 왼쪽)과 박금호 로터스월드 총괄국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별도의 정화 처리 없이 지표면으로 흘러 식수와 생활용수에 혼합돼 사용되고 있다. 그마저도 지하수량이 많지 않아, 우기에 빗물을 저장해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식수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안전한 식수 제공을 통한 미얀마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발원하고, 2020년부터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재 미얀마 사원학교를 중심으로 정수시설 45개가 설치된 상태다. 정수시설 1기가 설치되면 아이들과 마을 주민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특히 정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원학교 학교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와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정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에게 정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양 기관은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

업무협약에 따라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마을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수시설 건축 진행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 지원도 관장한다.

현대불교신문은 기사, 광고 등을 통해 '정수시절 지원 캠페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협약 기간은 올해 7월 16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2년이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총괄국장은 "오염된 물로 전 세계에서 한 해 평균 500만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그만큼 물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얀마 사원학교 아이들과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근심 없이 생활하고, 나아가 미래를 꿈꾸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현대불교신문 총괄국장은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미얀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수시설 지원 사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탱크, 각종 필터, 수도시설 등 정수시설 1기를 조성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로터스월드는 후원자에게 정수시설 조성 과정과 효과,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한다. 후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로터스월드(02-725-4277)로 연락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후원 계좌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대 광 불 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